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인간은 ‘육신’ 인고로 60% 밖에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행한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신령한 자기 혼’ 으로 보고, 느끼고, 행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도 제대로 보고 느낀다.
2. 하나님께 ‘말’ 을 하고, ‘의논’ 을 해야 하나님이 알고 행하신다.
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면, 자기 육성으로 행하게 된다. 고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화’ 를 먼저 해야 된다.
4.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행해야 된다.
5.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지 않으신 때에는 지상에 생명 역사를 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지상에 보낸 자와 대화하시게 됐을 때, 그제야 세상에 구원 역사를 행하셨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리도 중요하다.
6. 사랑하는 자들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을 안 하신다. 고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진정 말을 해야 된다.
7.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말을 해야 통하듯이, 하나님께도 먼저 말

을 해야 통한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과 ‘하나님이 자기에 행하신 일’ 을 아는 대로 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말하는 것이다.

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행한 일인데, 사탄과 그 육신들이 힐문한다고 하나님께 고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행한 일은 죄가 아니다. 네게 준 권한으로 말이 겁이 되어 행하라.” 하셨기에, 기도하며 간구했다.

9. 뼈가 어긋나면 아픈 고통이 오듯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 행하면 그로 인해 아픈 고통이 일어난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듯이 ‘하나님의 역사’ 도 ‘개인의 역사’ 도 바로 잡고 가야, 고통 없는 역사를 편다.

10. 몸의 뼈를 잘못 맞추면 뼈가 비틀어지고 어긋나서 결국 불구자가 되듯이, 뼈와 같은 진리를 잘못 알고 그릇되게 전하며 비(非)진리로 행하면 ‘신앙의 불구자’ 가 된다.

11.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도 ‘대화’ 와 ‘기도’ 를 해야 그 심정을 알게 된다.

12.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성령님의 마음도 알 수 없다. 말을 해야 신의 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니 알 수 있다.

13. 기도하니, 꿈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서 깨끗한 곳이 보이고, 대

적하며 힐문하는 자와 싸워 이기고 행했다.

14.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도 성령님도 빠지지 않고 기뻐하며 돕고 행하신다.

15. 기도하니,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와 섭리사에 즉시 행하시어 표가 나게 좋아지도록 하고 계신다.

16. 주도 기도를 진정 열심히 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하심을 뜨겁게 느끼고, 그것이 눈에 보이듯이 느껴져 보인다.

17. 세상에서 최고 큰 영광인 휴거를 이루어 주셨으니, 휴거된 자들로서 ‘큰 정성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도리다.

18. 하나님은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 ‘성경의 6000년 역사’를 펴 오셨고, 당세에 시대 보낸 자가 ‘20년 동안 기도’ 하게 하셨고, 섭리 역사를 37년 동안 기르신 후에 성자가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휴거시켜 주셨다. 휴거가 하나님이 지상에 펴신 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원하셨던 일임을 알고, 귀하고 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해야 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기뻐하며 ‘자기 문제’와 ‘섭리사의 문제’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문제’와 ‘코로나 문제’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간구하자. 기도해야,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즉시 실행하신다.

20. 기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도 세상살이도 쉽고, 기쁘게 하게 된다.

21.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에스더, 이사야, 밧모섬의 사도 요한, 메시아 예수님같이 ‘심정을 알아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심정이 통해서 와서 도우신다.